



마지막 회, 강자(强者)로 키우시는 미륵부처님의 제자 사랑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도(道)는 강자(强者)라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미륵부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 미륵부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강자가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연단시키신다. 그 연단이라는 걸 당하는 당 시작했는데 그 소송이 수십 건에 다다 참 지나고서야 '아! 미륵부처님께서 나를 강자로 키우시려고 이렇게 연단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륵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수십 건의 송사(訟事)로 세상의 이치를 깨닫다

미륵부처님께서는 7년 옥고를 치르실 때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아버지께서 경황이 없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계모가 나를 비롯한 친모(親母) 가족에게 돌아오는 아버지 재산의 상속분을 가로채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계모는 법률적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온갖 죄와 거짓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 나는 세상 일에 대해서 잘 몰랐고, 더욱이 법에 관하여는 무지(無知)하여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미륵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 도로 찾아오라고 말씀하셔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송이 수십 건에 다다르게 되었고, 결국은 다 패소하여 내 몫으로 당연히 찾아올 상속분을 모조리 빼앗기게 되었다. 너무 윤통하고 분했지만 나는 이런 소송을 보면서 정의와 신리가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겪어 알게 되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상이라 권모술수와 뇌물 등 술수에 능한 자가 진실을 왜곡시켜 패배를 안겨주는 것을 체험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미륵부처님 사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미륵부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헌금사기죄로 7년을 복역하시니 얼마나 억울하실까 진실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무 죄가 없어도 벌 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나처럼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륵부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제단에 등을 돌리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소송을 통하여 세상을 배우게 되었다. 만일 소송을 안 했다면 미륵부처님의 안타까움만을 간접적으로 알고 말았을 텐데, 직접 이런 일을 겪어 진실과 정의가 패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들과 미륵부처님의 안타까움을 아는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럴겠지'와 '그렇다'의 차이는 엄청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미륵부처님의 7년 옥고

한번은 안양교도소에 계시는 미륵부처님을 뵈을 때 손가락에 반창고를 두르고 계신 모습을 보고 미륵부처님께서 차디찬 감방에서 출게 고생하시다 보니 동상(凍傷)이 걸리셨나 보다 하여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나라도 어떻게 미륵부처님을 빨리 옥중에서 나오게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너무 일이 안 풀렸다. 내 소송도 그렇지만 미륵부처님 소송도 그랬다. 일이 잘 안 풀리니 늘 가슴이 답답했다. 미륵부처님은 결국 거의 만기를 다 채우시고 출옥하시게 되었다.

미륵부처님의 출옥으로 맘이 너무 기뻐했다. 대자대비(大慈大悲)한 미륵부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7년 옥고를 치르셨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러웠다.



미륵반가사유상

미륵부처님께서 나오시자 제단은 옛날처럼 다시 활기를 띠어갔다. 미륵부처님은 특전대를 다니시면서 제단을 부흥시키시려 애를 쓰셨다. 당시 나는 발목을 접질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는데 이렇게 누워있어서 되겠는가 하여 특전대를 따라 다녔다.

제단이 활기를 띠게 되자 새식구들도 하나 둘씩 오기 시작했다. 어떤 새식구가 마산제단에 오셨는데 주님께서는 그분을 많이 챙겨주라는 내용의 꿈을 보여주시기에 열심히 그분을 챙겨드렸다. 그분은 보광(普光)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제단에 잘 나오시면서 영생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서 감사하다.

오직 내가 확인한 사실만 믿게 되다

이렇게 제단이 한참 부흥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미륵부처님께서 입에도 담기 어려운 죄로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 저건 분명 아니다'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럴

말할 힘도 없었다. '이건 분명 종교탄압이다. 진리를 막으려는 마귀의 힘의 발동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미륵부처님과 진리의 승리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형편에 있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 시간에 미륵부처님의 승리를 간절히 기도해 나갔다.

그리고 나는 재판이 있는 날이면 열일 백일을 제쳐두고 1시 재판이 열리는 수원으로 향했다. 당시 법정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에서는 제단에 입장권을 몇 장 주었지만 제단 간부들에게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받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법정에 들어가는 길이 없나 알아보니 재판 당일에도 입장권을 선착순으로 준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입장권을 받기 위하여 미리 재판 하루 전날 올라와서 수원에서 자고, 새벽같이 가서 줄을 서서 표를 받았다. 누명이 벗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재판을 지켜봤다.

그런데 나의 배법과 달리 수원법원은 미륵부처님에게 사형판형을 내렸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미륵부처님

을 너무 모함을 하는 담당검사가 미워졌다. 어떻게 죄 없는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씌울 수 있을까! 조사를 직접 한 담당검사는 누구보다도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너무 미웠다.

하지만 미륵부처님은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형제의 죄가 내 죄다, 라고 자유를 법을 정하시어, 미워할 수도 없었다.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미워할 수 없으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그럴 때마다 미륵부처님의 도가 얼마나 흠과 티가 없이 온전한 유사 이래 최초의 완벽한 도(道)인 것을 알고 탄복을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한 모퉁이에 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나중에 어떤 벌을 받으려고 저 짓을 하는지 꼭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새겨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미륵부처님 사건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떠들어댔다. 언론은 사실이 아닌 일도 무조건 대서특필하는 악습을 이 사건에도 되풀이하고 있었다.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 그 소식을 접하는 일반인들은 '저 사람이 저런 혐의를 받고 있구나.'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단정하게 된다. 이런 일을 당해본 사람이 아니고는 이 누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나는 이 사건 이후로 언론을 믿지 않게 되었다. 오직 내가 확인한 사실만 믿게 되었다. 오보의 병폐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의 나라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체험했던 것이다.

그 후 미륵부처님은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데 곧 출옥하실 줄 알았던 미륵부처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멍해졌다. 보광소식을 들은 그 날, 이 엄청난 소식에 멍한 상

태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그 다음날 미륵부처님께서 안양 생병원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그 곳으로 달려갔다. 만일 미륵부처님이 돌아가셨다면 누군가가 독살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반드시 그걸 밝혀야 된다고 생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한 후 독살당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믿지 못했다.

그러다가 나중에야 미륵부처님께서 스스로 보광(普光)의 길을 가신 것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 당신이 보광하신다는 말씀을 미리 다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나의 완성을 위하여 보광하신 큰 뜻을 잘 받들자

보광하신 후 어느 날 본부제단에서 연합 예배를 볼 때 비디오 화면에 비친 미륵부처님의 손에서 감로(甘露)가 발산되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미륵부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물론 나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미륵부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더욱 미륵부처님께서 현존(現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다.

나는 미륵부처님께서 보광하신 그 뜻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미륵부처님께서 그러한 길을 가신 것은 당신의 제자들을 강자로 키우려는 뜻이라는 점이다. 미륵부처님의 이러한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크게 분발해서 내 스스로를 올바로 세우고, 나의 완성을 위하여 매진해야 되겠다고 다짐한다.*

김희성 권사/마산제단

우리는 모두 작자 미상의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아버지 심 봉사를 효성스럽게 받들고 마침내 심 봉사가 눈을 뜨게 되는 줄거리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은 심청전을 구도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별기고

심청(沈淸)은 곧 심청이다. 심 봉사의 본명은 심학규(沈學圭)이니 곧 심(心)學(學)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이 같은 것을 취하여 본래의 뜻을 가리는 방법을 영어로는 punning(동음이의의 이용) 기법이라 하는 것으로서 비결서, 예언서, 각 경전에서 하늘의 비밀을 숨겨두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었다. 심(心)은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이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이다(淸:맑다. 빛이 선명하다. 탐욕, 사념(邪念)이 없다). 심학규에서 學은 배울 학이요 圭는 홀 구로서 홀은 하나, 혼자라는 의미이며 이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소가 위 아래로 두 개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곧 中央 戊己 5.10토를 의미하니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더하면 15수가 되니 15진주의 자리인 것이다. 10은 구세주 하나님으로 5는 구세주 하나님이자 좌정하신 백보좌(白寶座)로서 구세주 하나님의 몸이 된다. 진주(眞主)란 참 구세주란 의미이며(진짜 구세주라는 말은 진짜 구세주를 전제하고 있다), 참 구세주가 출현하기 전에 천하를 어지럽히고 후세무민하는 진짜 구세주가 먼저 나와서 구세주인양 천하에 군림하여 천하 만민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트리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백보좌라는 것은 역철학에서 천하의 가을에 구세주가 출현한다는 뜻에서 가을은 백색으로 나타냄으로써 백보좌라고 보통 설명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필자는 구세주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깨끗하기 때문에 백보좌라고 한 것으로 보고 싶은 것이다. 왜냐하면 구세주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한 곳에 좌정하시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5토와 10토를 곱하면 50이 되니 소위 50년 공부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공부한다는 의미가 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우

고 공부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운선생이나 강증산 선생이 50년 공부종필(工夫終畢)을 말했던 것이다. 즉 하나님 공부를 마치고 끝났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분들은 죽음의 세상을 개벽하여 불로불사의 천당 극락세상은 구현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만 그 세상을 준비하는 과정의 하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50년 공부종필이라는 말에서 50세에 이르러 구세주 하나님이 한 인간의 몸속에 완전히 좌정하게 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즉 강증산 선생이 그 마지막 주인공을 대두목이라 칭하고 이윤의 도수를 불렀던 것이 바로 저간의 소식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윤의 도수란 바로 오십이저사십구년제비(五十年而獲四十九年之非)를 말하는 것으로 나이 50에 도통한다는 의미가 때문이다. 즉 대두목이 50에 이르러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다.

심봉사는 구도자

심청전의 심 봉사는 하나님을 배우고 공부하는 구도자이며, 마음을 깨끗하게 수도하여(심청) 마침내 눈을 뜨는 것(도통)을 그린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심청전을 한번 살펴보자.

심청이의 어머니 곽(郭)씨 부인은 심청(沈淸)이를 낳은 지 7일 만에 세상을 뜨고 심 봉사(심학규沈學圭)가 핏덩이인 심청이를 안고 동냥짓을 먹이러 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구도자 심 봉사의 마음이 처음에는 누구나 인간이면 다 그러하듯 마음속에는 깨끗함(心淸)이 약하고, 어리며 오히려 탁한 기운(心濁-心淸의 반대)이 그 마음나라의 입구

沈淸傳의 求道的 意味

심청전

구도적

의미

이며 폭군으로 군림하여 그 마음을 지배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항상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마침내 죽게 된다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심청은 양심으로 하나님이고, 그 반대의 의식은 마귀니(마귀)가 되며 나라는 의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다음에 동냥짓을 먹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본다면 이렇 것이다. 처음에 아랫동네에 갔으니 거기는 아마도 유가(儒家)네 마을이었을 터이다. 그 동네는 인(仁)을 주장하니 곧 크기 복례(나를 극복하여 레로 풀이간다)를 말한다. 그러하여 크기승자(克己勝者)는 천하승(天下勝)이라는 조상의 가르침을 받드는 마을이었다. 심청이를 안은 심 봉사는 유가네 마을에 가서 코가 땅에 닿도록 땅에 엎드려 어린 핏덩이 심청이에게 생명의 젖을 먹여달라고 애걸복걸 하였을 것이다. 젖을 먹이고 나서 나올 때도 엎드려서 수없이 절하고 감사하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윗동네로 심청이에게 젖을 먹이러 갔으니 거기는 불가(佛家)네 마을로서 명심견성(明心見性: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본다)을 바탕으로 무아경지(無我境地)에 이르러야 도통한다는 조상의 가르침을 받드는 마을이었다. 역시 여기에서도 심 봉사는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애걸복걸 피눈물을 흘리면서 청이에게 생명의 젖을 먹여달라고 애원하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옆 동네에 갔으니 거기는 선가(仙家)네 마을로서 호흡 수련을 기반으로 수심연성(修心鍊性: 마음을 닦아 성을 단련한다)하여 신선이 되려는 집들과 '나와 간

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들이 있었으니 거기에서도 애걸복걸하면서 심청이에게 생명의 젖을 먹고 심청이를 키워낸 것이다. 한편 마음속의 탁한 기운(心濁-마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약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구도자는 첫째, 자신을 낮추어야 하며, 둘째, 결사적으로 애걸복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셋째, 뜨거운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며, 넷째, 구도자는 마침내 크기(克己) 무아(無我) 망아(忘我)의 경지를 이루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이는 유가네, 불가네, 선가네 마을을 찾으면서 생명의 젖을 먹고 자랐던 것이다. 청이의 핏속에는 유불선(儒佛仙)의 진액이 합쳐 흐르면서 자라게 되었다(儒佛仙合一).

청이가 차츰 자라매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아버지를 받들니 그 효성이 지극했던 것이었다. 한편 심 봉사는 시주 받으러 다니는 스님의 말이 공양미 300석이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눈 뜰 욕심에 잘 생각해보지도 않고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겠다고 덤터기 약속했으나, 시간이 흘러 공양미 300석을 마련할 길도 없고, 약속을 갚 수도 없어 수심에 잠기니, 청이가 이를 알고 공양미 300석을 마련하자 마침내 뱃사람 상인들에게 공양미 300석에 팔려 인당수에 빠지게 되었으나, 하늘이 보살피사 살아나 왕비가 되었다. 눈먼 아버지 생각에 전국에 있는 봉사를 불러 잔치를 벌이게 되니 심 봉사도 참석했던 것이었다.(중략)

이 대목에서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는 것과 같이 기복적인 행위로서는 눈을

뜰(도통, 성령으로 거듭남)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대가를 바라는 행위로는 참된 수도가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봉사 잔치란 말은 내(눈 뜬 사람)는 알고, 너(봉사)는 모르다는 뜻이다. 봉사는 음식의 색깔도 못보고, 그릇 모양과 기화요소가 만발한 궁궐도 못보고, 맛없는 건 흠사위도 볼 수 없고, 잔치가 아무리 흐드러지게 벌어져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없다는 뜻에서 사용한다. 이와 같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인간들은 다 심 봉사로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모르는 것이다. 한 치 앞을 못 보는 인간들을 통틀어 심 봉사라하는 것이다.

또한 중간에 행덕 어머니가 수시로 심 봉사를 골탕 먹이는 장면이 있는 것은 구도의 길에는 항상 마귀가 방해를 놓으니 이를 잘 참고 이겨내어야 하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마음속 심청이를 키우자

심 봉사가 눈뜨는 장면을 보자. 청이는 아버지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것을 보고 육황상제(구세주 하나님, 미륵불)를 울부짖으며 아버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을 터이다. 한참을 대성통곡한 후 마침내 심 봉사를 향하여 "아버지!" 하고 크게 부르며 다가오니, 심 봉사가 청이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청아!" 하면서 "어디보자 네 팔 청아! 하는 순간 심 봉사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진실로 원하는 바(욕심을 채우는 것을 제외하고)가 있으면 구세주 하나님께 울부짖듯 애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을 떠다는 것은 광명(빛)을 얻었다는 것이요, 구세주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심청)속에 좌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즉 도통인 것이니 크기자(克己者)는 천하승(天下勝)의 순간이며, 무아지경에 이롭이요, 나와 세상 간 곳 없는 순간인 것이다. 곧 성령으로 거듭남이요, 천지개벽인 것이다.

원래 인간의 마음이 명경지수(明鏡止水)와 같이 맑고 깨끗하지 않고, 오히려 탁하고 잡된 것과 찌꺼기가 섞여 있으니 심청(心淸)이가 아니라 심탁(心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마음속의 탁한 것이 바로 마귀니(마귀)이며 현재의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 이 마귀니(마귀)를 육황상제(구세주 하나님, 미륵불)가 유불선 각 경전과 격양유록 등에 나와 있는 감로해인(감로수, 이슬성신, 불로초)으로써 조금씩 마음속에서 없애버리고,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심청이가 자라가는 것으로 그려 놓은 것이다. 천국 극락에서 사는 법도(자유를 법)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심청이의 효성 속에 담아 그려 놓았던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심 봉사(心學圭)로서 부지런히 힘써 구세주 하나님(미륵불 정도령)으로부터 불로초가 되는 감로해인을 받아 마음속에 심청이를 키워야 할 것이다. 그러면 마침내 광명(빛)을 얻어 눈을 뜨게 될 것이요, 광명한 세상(천국 극락)에서 죽음과 애통함이 없고 기쁨과 쾌락만이 있는, 웃음으로 사는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심청이를 키우는 데는 무엇보다도 감로해인(불로초 불사약)이 꼭 필요하니 이 감로해인을 먹여 주시는 분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눈을 뜨고 싶은 심 봉사라면 지팡이라도 잡고 찾아와야 하는 것이다. 여기 감로해인 불로초가 있으니 때를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값도 없이 드시라고 권하는 것이다.*

동양철학 고서연구자 박명하 myunghpark23@naver.com